

2010 청소년활동가대회 ‘챗’(2010. 08. 05 ~ 2010. 08. 07) 회의록 정리

[1차 모임] 6월 24일

- 공동 주최 단체 확인: 공동주최단체의 기준을 확인하고 후원단체와 구분함.
- 날짜와 장소를 간단하게 논의, 대략적인 예산안 잡기.
- 기획단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청소년활동가대회에 대한 희망 나누기

[2차 모임] 6월 30일

-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소 논의, 참가 대상과 인원을 확정.
- 활동가대회 2박 3일 전체 일정을 대략적으로 짜 봄.
- 활동가대회를 시기를 겨울방학 즈음으로 미룰 수 있는 지 문의해보기로 함. (추후 일정 연기가 무리라 판단하여 8월에 가기로 함.)

[3차 모임] 7월 5일

- 청소년활동가대회 슬로건을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챗[chat]’> 으로 확정함.
-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오덕 훈련원’ 으로 장소 결정.
- 초안으로 나온 시간표를 보며 프로그램 초벌 논의를 함.

[4차 모임] 7월 11일

- 각기 프로그램 기획을 간단하게 함께 논의 하고 자세한 기획은 분담.
- 온라인 홍보물 검토. 오프라인 홍보의 세세한 역할 분담과 홍보 연락처 리스트 작성.

[5차 모임] 7월 16일

- 예산 검토와 수정. 후원요청서 검토 및 수정과 ‘챗’ 후원 조직과 연락 분담.
- 참가신청서 검토와 신청 방법, 참가비 논의
- ‘챗’ 온라인 홍보 계획 짜기

[6차 모임] 7월 19일

- 모둠토론과 끝장토론 기획을 집중 논의. 토론 진행 역할 분담.

[7차 모임] 7월 21일

- 오리엔테이션, 약속 정하기, 활동 나누기 프로그램을 집중 논의. 진행 역할 분담.

[8차 모임] 7월 25일

- ‘챗’ 2박 3일 프로그램 총 검토와 수정 및 보완.
- 후원 상황 검토와 예산 지출 사항 관련 논의.

[9차 모임] 8월 3일

- 프로그램 별 준비물 체크와 참가자 인원 체크
- 당일 진행 역할분담과 프로그램 진행을 사전에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 봄.

[10차 모임] 8월 13일

- '챗' 준비 과정/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에 대하여 놓친 점과 좋았던 점 등을 평가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점검
- 후속 모임 날짜 잡기와 기획. 후속 자료집 관련 연합 분담.

청소년활동가대회 준비모임 회의

일시 : 2010년6월24일(목) 오후8시~9시30분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충정로역)

참가: 품(이상섭, 유현희)/문화예술센터(이소영)/희망(이상현)/들(개굴)/동인련(정율, 코코샤넬)/
아수나로(따이루, 거부기)/네트워크(난다)/문화연대(소연)/나다(정크)/활기(엠건, 어쓰)

1. 공동주최단체확인

- 현재 참가단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권교육센터‘들’,
교육공동체‘나다’, 문화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다함께, 청
소년문화공동체‘품’

- 다산인권센터(당장 회의결합은 못 했으나, 캠프 프로그램 꼭지 말기 등까지 같이 할 계
획), 녹색연합(참가의사 있으나 좀 더 얘기 들은 이후에 결정), 탈학교청소년공동체 학교너
머, 청소년문화예술센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은 추후 내부 논의 후 확정함.

-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주최단체 참여 논의

▷ 주최단위로 결합하되, 회의 참석 할 것을 요청.

▷ 회의 결합이 어렵다면, 후원단체로 결합하는 걸 요청.

▷ ‘청소년 사업 진행/ 청소년이 자원 활동 등으로 결합하고 있음’ 의 기준을 공동주최단
위로 한다면 후원단체로 가는 게 맞음.

▷ 교육감 등 청소년 의제로 활동을 안 한 단체는 아님. 취지에 공감하고 같이 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에 공동주최단위로 같이 해보는 게 그 쪽에서 청소년 운동에 관심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후원단체로 결합해달라 제안하기 (연락:소연)

2. 기획단의 역할

- 내용을 생산, 기획하는 과정에 공동주최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다 결합하자.

- 기획단을 꼭지 별로 쪼개서, 프로그램 별로 역할 분담.

- 최소한의 기본기획은 전체회의에서 함. 앞으로 1, 2회 정도 총 모여서 하는 회의를 함.

3. 날짜 확정

- 8월 첫째주 둘째주에 평일로 해서 공간일정에 맞춰 2박 3일로 구함.
 - ▷ 첫째주는 나다, 들에서 좀 힘듦, 둘째주 품이 자체 행사 기간.
- 1순위 : 8월 5~7 / 2순위 : 8월 11~13 (이 날짜로 장소알아봐서 확정)

4. 장소

- 조건
 - ▶ 서울에서 3시간 이내 거리, 대중교통 들어갈 수 있음. (가까울 수록 좋음.)
 - ▶ 숙박, 그 외 다른 공간 (강의,워크샵,놀이 공간)이 70명 이상 수용 가능.
 - ▶ 숙박이 최대 300만원 이내로 해결 가능한 곳.
 - ▶ 조건 충족되고, 좀 산 좋고 물 좋은 데도 서울도 가능.
- 품, 문화연대에서 담당하여 알아오고, 다른단체들도 알아옴. (6월 30일 목요일까지 공유)

5. 예산

- 아름다운재단 500만원 확보
- 공동주최단위의 분담금
- 기타 후원금; 참여연대 '열정세대' 수익금 후원
- 참가비; 최소 부담금으로 해서 5천~ 1만 정도 (낼 수 없는 사람, 지역은 면제)
 - 장소와 프로그램이 나와야 예산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참여연대 가서 후원금 받을 사람 정하기; 품, 타이루

5. 활동가대회에 대한 희망

- 놀 수 있음 좋겠다. 처음 만났는데 프로그램부터 하는 거보단 막 부대끼고 노는 거.
- 기존 캠프가 강의, 참여 식의 느낌이였다면 이번엔 그냥 꺼리를 멥텅 멥텅 가져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현재 활동하는 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 애초 기준대로 활동력이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음. 각각의 주제나 영역 별로 하는 활동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아수나로 청소년팀, 품 동네놀이터...

- 서로에게 힌트 얻을 것들이나 더 궁금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류. 지금 하는 것들에 느꼈던 한계들.. 다른 방식의 대안 모색.

▷ 사례 발표 식 나열만 하면 지루하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기획.

- 끝장토론 하고 싶음. 결과가 정해진 토론이 아니라, 자유토론 난장토론.. 그러면서도 모두가 얘기할만한 건덕지가 있는 걸로.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라고 했을 때, 선거권 등의 권리가 없다 식의 얘기 말고. 청소년 활동가 대회 제안했을 때, 어떤 청소년들은 이게 너무 정치화된 모임이라 생각해서 꺼림, 청소년 활동이 순수해야 한다- 과잉정치화 되어있다 그런 얘기가 있음. 이런 얘깃거리라거나..

▷ 집회와 문화 활동 사이. 청소년 운동이 반드시 정치와 인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 문화활동은 너무 비정치적이다 생각하는 것도 편견. 서로 적대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논의가 있음 좋겠다.

-그 외에도.. 청소년은 청소년인가, 하나의 집단인가?

- 평소에 회의나 대응 싸움만 했음. 스쳐가는 고민들을 꺼내놓고 늘어놓고 싶다.

- 너무 많은 걸 욕심내지는 말자. 시간도 정해져 있고, 첫 번째인만큼.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나온 쟁점들을 갖고 토론한다- 정도.

- 큰 방점,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캠프가 되는 것. 청소년활동가들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외로움. 소모임 활동을 하건 운동을 하건 그 집단 내에선 같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괜찮은데 일상을 투쟁으로 살아야.. 탈학교도 많고. 그 싸움이 외롭지 않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위에 쓴 후속작업으로도 가능하므로.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는 작업.

-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비청들의 괴로움/ 비청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괴로움
- 기획단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스텝으로 가지 않았으면. 일만 하고 소모되는 것도 있고, 참가자와의 단절. 스텝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더라도.. 스텝목걸이 걸지 마.
 - ▷ 단점은 몇 명이 몰아서 함.
 - ▷ 사전모집 하나까 메일 등으로 충분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공유.
 - ▷ 스텝들만 정보를 공유 (다음 프로그램, 위치, 자원들) 모든 정보를 오픈함.
 - ▷ 여러 방법들 고민; 프로그램 별 메인 코디 알려주기, 안내부스 설치, 아니면 모두가 스텝. 모집할 때부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캠프 기간 동안 뭘 하고 싶고, 이걸 잘 할 수 있다 등을 참가신청서에 써준다거나.
 - ▷ 돈 관리 하는 사람, 총괄만 남기고 평등하게 하자고 해도 항상 힘듦. 청소년들이 욕구에 의해 만든 캠프라면 이 활동가 대회는 서로 서로에게 배우고 교류하는 자리이므로 신경써야 할 것 같음.
- 너무 타임스케줄 빡빡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각자 단체에서 다음회의까지 해와야 할 일>

- 조건에 맞는 장소 찾아오기
- 단체에서 프로그램 논의해오기
- 후원받을만한 곳 알아오기

*** 다음회의 : 6월30일(수) / 낮1시 / 인권운동사랑방(충정로역) ***

청소년활동가대회 6월 30일 전체모임

일시: 2010년6월30일 오후2시 /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충정로역)

참가: 동인련(영상고,평인) 네트워크(난다) 아수나로(따이루,거부기) 이우학교인권동아리아우누름(한별,민영) 활기(엠건,어쓰) 품(섭섭)

1. 주최단체

- 공동주최단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교육운동본부(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권교육센터'들', 이우학교인권동아리'아우누름',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활기', 문화연대, 청소년다함께, 교육공동체'나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희망',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2. 장소, 날짜확정

▷결정: 8월11(수)~13일(금) / 삼각산 재미난 학교(4.19묘지근처)

▷ 더 나은 공간 있는지 대안학교와 대학교 알아보기(담당:따이루,어쓰)

▷ 품은 내부프로젝트로 행사 참여는 거의 불가능. 삼각산으로 가면, 가까이에 있으므로 프로그램 별로 일부 참가 가능 할 수도. 연결은 추후 확정되는 프로그램 보고.

3. 참가 대상, 인원 확정

-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가들 중심으로 감. 활동이 있는 단위에서 모집하고, 참가 대상 설명할 때도 이런 활동 실천하는 청소년들로 함(관심 있는 일반청소년(?)참여 막지 않기로)

- 70명 기준으로 구상(스텝포함)

4. 활동가대회 날짜 연기 제안

▶ 8월로 갔을 때의 안을 만들어두고, 겨울에 가는 건 아다재에 문의 해보고 추후 정함.

5. 프로그램

- 전체 컨셉 : 1.놀면서 친해지기 / 2.토론

(1일) 13:00~22:00(8시간 반) : 첫 날은 놀고 친해지기. 단체들 활동 서오 공유하기

(2일) 09:00~22:00(13시간) : 둘째 날은 토론 + @

(3일) 09:00~12:00(2시간) : 간단한 마무리

▶ 컨셉을 기본으로 전체 일정/프로그램에 대해 각 단체별로 구체적 짜서 7월4일(일)까지 회의 전에 활동가대회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고 5일 회의에서 확정

6. 후원

- 후원받을만한 곳: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대안교육센터, 대안교육연대, 민주화교수단체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 지속적으로 알아보기로

다음회의까지 해야할일

1. 단체별로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짜서 카페에 올리기(단체서 논의 안되면 개인으로라도)
2. 활동가대회 슬로건,제목 아이디어 모아오기
3. 어쓰와 파이루는 공간 좀더 알아보기
4. 아름다운재단에 활동가대회 겨울방학으로 연기가능한지 문의하기(파이루)

다음 회의는 7월5일 월요일 늦은6시30분 장소는 추후공지(충정로or사랑방)

 [청소년활동가대회 6월 30일 전체모임.hwp](#)

청소년 활동가 대회 준비회의 (7월5일)

참가: 이수나로 거부기, 파이루/ 활기 어쓰, 엠건/ 아우름 한별, 민영/ 나다 날토

1. 날짜 재조정

- ▷ 첫째 주 : 나다, 품 참가어려움, 활기도 약간 부담
- ▷ 둘째 주 : 보충 끝나서 더 좋을 수도
- ▶ 오덕훈려원 일정 수정 문의해서 맞춰서 결정 (연락: 엠건)

2. 숙박지 교통

- 70명 인원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기가 어려움+불가능
- 예산 60만원이하면 버스대절(가격알아보기:거부기)

3. 예산

- 셋째날 아침 직접요리하기로 대체(둘째날도 간단한 빵으로 대체고민)
 - 후원금 최소 150정도는 모을수 있을거라 예상

4. 슬로건(제목)

- 확정 : <2010청소년활동가대회‘챗[chat]’> (chat:수다,대화)

5. 프로그램

- 아우름과 이수나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의(카페참고)
- 구체화+ 확정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눠말아가기로

상시

- 참가자들에게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 감동했던, 의미있는 등등에 사진,그림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1-2줄)을 모아 강당에 전시
- 라디오방송진행(방송시설상황에 따라) : 청소년활동가인터뷰? 토론밀밥던지기?

1일

[부스]

- * 단체 별로 신청 받아서 간단한 부스
- * 출판사나 개인에게 받은 책과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 수익사업(장터)

[오리엔테이션]

- * 캠프일정,시설 안내 등

[2박3일을 지내기 위한 간단운영회의? 약속정하기?: 날토]

- ▷ 규칙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통보하는 방식은 캠프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참가자들이 불쾌할수 있음.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공론화 되는 과정이 필요
- ▷ 규칙을 정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 그럼 규칙정하지 말자 제안하며 토론해보자
 - ▷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 ▷ 이미 결론이 짜져있는 토론이 될수도(짜고치는고스톱) -> 스탭들이 결론 미리 만들어두지 말고 개별 참가자으로써 토론하자(사실상 첫 프로그램이라 충분히 가능할듯)
- ▷ 몇몇 소수 이야기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분위기 -> 한계이지만 그래도 의미있음, 활동가들 그래도 말 많을거임
 - ▶ 위에 내용을 담아 형태를 더 깔끔하고 재밌는 걸로 함! (담당:날토)

[활동 나누기: 엠진/어쓰]

(1) 모듬별이야기+ 발표

- * 단체가 골고루 섞이도록 조정하여 모듬을 구성하고 모듬에서 이야기
 - * 이야기한 내용을 모아 발표
 - ▷ 개인들 부담이 큼

(2) 다함께발표+ 토론

- * ppt나 영상으로 활동내용 5분 이내로 소개
 - * 활동에 대한 질문과 토론
- ▷ 약15개단체가 5분씩하면 발표만 75분.. 지루

(3) 난장 소개

- * 시작할때 단체들 이름/활동 간단하게 짚약 소개
 - * 돌아다니며 10고개로 질문하여 단체알아보기
- ▷ 산만하고, 정신없어서 깊은 고민이나 이야기가 나오기 더 힘들다
 - ▷ 1분인터뷰처럼 될수도(재미x,형식적,부담)

(4) 카드 질문

- * ‘활동’을 키워드로 다른 사람에게 답변 듣고 싶은 궁금증이나 이야기를 익명으로 자유롭게 적음.(ex:아수나로 어떻게 생각해요? cms를 어떻게 모을까? 집회같이준비해봐요)
 - * 한군데 모아서 랜덤으로 하나씩 가져가서 자유롭게 답변
 - * 질문과 답변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전시

(5) 모든 참가자들이 어느 단체인지 비밀로 유지하다. 마지막에 공개(판타미라고소개할수도)

[달밤에 잉여 짓]

* 몇몇 조를 짜서 여유로운 문화활동(?) (ex:영화보기,마피아게임,산책,드라마보기)

2일

[물놀이]

* 물놀이 하고 싶지 않은 참가자를 위한 대책마련

[그룹모임: 한별,민영]

- ▷ 그룹별로 키워드만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추상적여서 잘 안될 수도
- ▷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청소년이 진행하는 강연,교육은 문화충격이 될수도
- ▷ 강연방식은 이야기를 듣기만 해야 될수도

[끝장토론: 파이루]

3일

[아침 같이 만들어먹기]

[사진보기+사진찍기]

2010청소년활동가대회 '챗[Chat]'

일시 : 8월5일(목)~7일(토) / 장소 : 오덕훈련원(경기도남양주시)

주최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공동체'나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이우학교인권동아리 '아우름', 인권교육센터'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문화공동체'품', 청소년활동기반마련프로젝트'활기'

지원 :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1. 프로그램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07:00~		아침식사 + 씻기	
08:00~			

09 : 0 0~			아점만들어먹기
10 : 0 0~		물놀이	
11 : 0 0~			마무리
12 : 0 0~		점심식사	
13 : 0 0~	참가신청/ 부스	낮잠+자유 시간	<상시프로그램> - 라디오방송(식사시간) - 활동사진전시 - 댓글토론(전지) - 문자토론
14 : 0 0~	O.T (안내)		
15 : 0 0~		모듬토론	
16 : 0 0~	약속정하기		
17 : 0 0~		저녁식사	
18 : 0 0~	저녁식사		
19 : 0 0~	활동나누기	끝장토론	
20 : 0 0~			
21 : 0 0~			
22 : 0 0~	잉여번개모 임	뒷풀이	
23 : 0 0~			
24 : 0 0~			
01 : 0 0~			

<활동 나누기 : 어쓰,엠건>

- 사실 몇 개의 팀일지, 어떤 팀들일지, 어느 정도의 고민을 갖고 있을지 잘 짐작이 안가는 게 있음... 그래서 프로그램 짜기도 어려운 것 같음.
- 게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던 열 개 이상의 팀들이 각자의 소개를 하면 어떻게든 지루해지거나 혹은 어지럽거나 어쨌든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는 듯
 - 만약에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게 발표할만한 팀만 ppt를 한다고 하면? 좀 아닌가...
- 일단 타이루가 말한 대로 사진 한 장씩이랑 설명 한두줄씩 받아서 붙여놓는 건 하는 게 좋을 듯
-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둠별로 나눠져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나눠질 때 분야별로 섞여 들어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인권, 환경, 문화 등으로 먼저 나눈 다음에 그것들이 잘 섞이게 모둠을 4~5개로 나눠서 한시간정도 얘기할 시간을 주는 것. 사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음. 미리 이런 활동나누기 시간과 그 방식을 공지해서 준비해오게 해도 좋을 듯. 혹시 정 얘기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얘기가 안 나오면 스텝중 누군가가 섞여 들어가기. 그 후 잠깐 쉬고 자신들 모둠에서 가장 재밌어 보이는 활동을 하나를 각각 정해서 그것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하고 그걸 발표하기

<모둠토론 : 한별,민영>

(1안) 강의를 하지 않는 경우 : 한 조당 10명씩, 7조로 나누어 조별 토론 진행

3:00 ~ 5:00 2시간 동안 토론 진행

1.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일제고사) - 더 나아가 모의고사와 수능이야기 까지 함께 이야기
2.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제한은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 범위는? = 그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하나? (ex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얘기 가능)
3. 청소년이란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ex: 학생이라면 학교생활부터, 그렇지 않다! 청소년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캠페인, 집회를 우선 참가해야 한다.!)
4. 청소년들의 성에 관해서(ex 교제부터 시작해서 임신 까지도)

5:00 ~ 6:00 모두 모여 조별로 나온 얘기 공유하는 시간 +나온 것에 대한 의견 나누기

(2안) 강의를 하는 경우

2-1안. 1가지의 강의를 길게 한 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조별 토론 or 전체토론 (우리끼리 나온 이야기는 전체토론은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이야기 70명은 너무 많다.)

3:00 ~ 3:30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에게 강연 시간

3:30 ~ 5:30 조를 나누어 2시간동안 토론 진행

5:30 ~ 6:00 모두 모여 조별로 나온 이야기 공유하는 시간

* 키워드는 1안 중 하나가 될 수

2-2안 3개정도의 강의를 한 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조별 토론 or 전체토론
 3:00 ~ 4:30 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에게 강의 1에 40분씩 2강의
 4:30 ~ 6:00 강의 주제는 2개로, 그러나 조별 토론은 같은 주제로 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이 경우 조별간의 공유는 시간 부족으로 힘들 것 같음.
 -강의를 넣는 것은 좋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시간뿐이라 시간 분배가 어려움
 만약 강의 시간을 정말 짧게 넣는다면 넣지 않는 것만 못할 것 같다는 의견.

<끝장토론 : 파이루>

(1) 토론주제

- 인권,참여,환경,평화 등등 여러단체 청소년활동가들이 두루두루 고민해볼만한 주제
- 아래 두개중 하나 선택(두개다 하기에는 시간,역량 부족할듯)
 - ▷ 나이(청소년주체성,비청소년의참여 등등) / 정치성(청소년들의정치세력화,정치성과중립성 등등)

(2) 진행방식

1. 참가신청서 받으면서 끝장토론 주제에 대한 앙케이트/설문조사 간단히 진행
2. 복도에 전지불하고 자유롭게 댓글 토론
- 3-1. 앙케이트 결과 발표
- 3-2. 주제에 대한 발제(토론주제던지기,약15~20분이내)
- 3-3. 참가자중 랜덤으로 뽑아서 자기의견 말하기 (약3-4명)
- 3-4. 쉬는시간(각자생각해보는시간)
- 3-5. 자유난상토론(문자토론 함께 진행)
- 3-6. 발제자/사회자마무리

2. 예산

(1) 아름다운재단제출 사업예산안(70명기준)

예산	총사업액 (10560000)원	신청금액 (5,000,000) 원	자부담 (4,060,000)원 참가비 (1,500,000)원
-----------	----------------------------	------------------------------	--

항목	금액	산출근거
기획 모임 (월2회, 8회예정) 사전 답사2인 (1회)	400,000 (프로그램기획) 150,000 (교통비 및 식대)	청소년활동가 교통비 및 간식 답사단 교통비 및 식대
버스대절 워크숍 자료집 (150부 이상) 후속 자료집 (150부 이상)	200만원 (≥2대) 30만원 30만원	영상팀은 촬영팀 2인이 2박3일 촬영 및 편집 제작 비용 포함입니다

영상 제작 (DVD 제작, 100개)	100만원	
프로그램 진행실비	50만원	
후속모임 (장소대관 및 실비)	35만원	
숙박비	126만원	9000원*70명*2박(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기준)
프로그램진행장소대관(강당)	100만원	워크숍을 비롯한 전체 행사를 위한 장소 대관
식사	175만원	5000원*70명*5식(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기준)
강사섭외비	60만원	4인 강사 (15만원*4)
포스터 제작	10만원	100부
홍보 진행	15만원	웹홍보물 제작
워크숍 물품제작비	20만원	워크숍 물품
기타 운영 실비 및 예비비	50만원	의약품을 비롯한 예비비
참가비	150,000	3만원*50명

(2) 현재 지출 예상 (70명기준)

지출	숙박+ 식사+ 공간	350만원	2박 / 4식
	버스대절	120만원	2박3일 / 45인승
	자료집	10만원	150부 / 흑백
	총	490만원	최소
수입	재단후원금	500만원	
	참여연대 후원금	10만원	열정세대상금 지원 X
	참가비	20만원	20명*1만원
	단체분담금	45만원	15개*3만원
	총	575만원	최소

<버스대절>

- 45인승버스

- 버스운송조합에 전세버스 요금 권고안 따라서 요금차이 크지 않음

- 요금에는 포함이 안 된 건데 기사수고비, 도로비, 주차비 더 붙음. (기사수고비는 하루에 5만원 쯤)

- 거리상으로 200km 미만이라 기본요금 + a 가 나올 듯.

- 성수기 요금이 아니라 비수기 요금임.

A업체 : 기본요금 380,000 + 대기요금(몇 군데 들르는 경우에 사람들이 구경하는 시간이
랑 처음 출발할 때 버스가 집결지에 도착할 때부터 목적지로 출발할 때 시간을 말하는 듯.)
20,000(확실히 모름) + 숙박요금 380,000원 * 2박 = 116만 원

B업체 : 당일 30만, 1박2일 50만이었으니 단순 계산하면 70만 정도 나올 듯.(1박2일까지는
요금이 나왔었는데, 2박3일은 그냥 '상담'이라고만;;)

C업체 : 기본요금 398,000원 + 대기요금 10만원 + 숙박요금 398,000 * 2 = 129만 4천
원

D업체 : 3박 85만.

E업체 : 기본요금 384,000원 + 대기요금 20,000원(확실히 모름) + 숙박요금 394,000 * 2
= 117만 2천 원

3. 홍보

<홍보물일러스트(초안)>

청소년활동가대회 준비회의(7.11)

일시 : 7월11일(일) 오후3시~6시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충정로역)

참가자 : 파이루(아수나로), 최훈민(위더스), 엠건(활기), 어쓰(네트워크), 이한별(아우름)

1. 프로그램

<비밀미션>

- 상시로 문자를 쏜다. 각자 사람찾기 미션 or 모두 한 사람찾기미션.

* 미션(예) : 라면을 밥보다 더 자주 먹는 활동가를 찾으시오

<오리엔테이션>

- 제비뽑기해서 '누구'를 찾음. 찾은 누구에게 랜덤으로 뽑은 '질문'을 함.

- 플로라이드로 사진을 찍을 경우 공간한쪽에 전시(사진은 얼굴이 아니어도 됨)

* 질문 : 그 사람의 사람의 기본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질문(이름의미) / 난감한 질문(어쓰를
좋아하시나요?)/전화번호/ 미션: '같이?그사람?셀카 찍기'(사진을 플라로이드로?)

<활동나누기(2시간30분)>

- 이름 : 변변치 않은 활동 소개

(아이디어3) 서바이벌 피피티 발표 : 1시간 시간제한으로 활동/단체 소개하는 ppt를 준비
기 순서로 발표(앞에팀이길면 뒤에팀은 못하는거)

(아이디어4) 알람폭탄 문답

- 알람시계에 알람을 맞춰두고 질문을 하고, 답변 할 사람에게 넘기다, 알람이 울릴때
가지고 있던사람이 벌칙당침

* 벌칙 : 난감질문세트에서 뽑아서 답변(ex:씨엠에스 규모는? 고치고 싶은 부위는?)

(아이디어8) 카드질문(마무리): 카드에 각자 활동이나 활동가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하나씩
쓰고, 취합하고 사람들이 랜덤으로 뽑아서 답변후 전시 (익명으로)

<모듬토론 (3시간)>

- 제목 : 오락(樂)

- 다섯가지 섹션, 주제는 자유(첫째날 저녁까지 성소수자, 교육, 학생인권, 팔레스타인 등
참가단체들이 할수있을만한 주제들을 투표해서 표 많이 받은 것 다섯 가지로 진행)

- 마무리는 각 모듬 별로 전지에 나뉘었던 얘기들 써서 공유

- 발제(강연)는 너무 길지않게 20분이하로

<끝장토론>

- 정치성 어렵다. 공감 가능하고, 재밌을만한 <나이>를 주제로

- 발제(강연) 준비해야 함.

- 다양한 참가 가능한 방법마련, 나머지는 파이루가 카페에 올린 안대로

2. 예산

- 예산 짜놓은 게 현재 다 바뀌었음.

- 오덕훈련원에서 세금계산서 안 된다고 했음! 확인해보자

- 예산이 여유가 되면 버스대절은 120만원 이내로 하는 걸로 함.

- 참가비는 1만원, 못 내는 사람 제외 멀리서 오는 사람 지원금까지 생각함.

-> 예산 전체 다시 조율 (또연과 파이루가)

3. 홍보

- 이번 주 초중에 웹자보, 포스터 디자인. 이번 주 안에 뿌릴 수 있도록.
- 포스터는 2~30부 뽑아서 전교조, YMCA 등 지역청소년단체들에 쪽 뿌리자. -> 홍보 시기를 놓쳤으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 이번 주말부터 참가신청받자.
- > 포스터 제작/배송 : 파이루
- > 연락할 단체/동아리 리스트 만들기 : 엠진, 한별
- > 신청메일 계정 개설, 신청서 양식 만들기, 관리 : 어쓰
- > 단체들 후원요청서 쓰기 : 정크

다음 회의는 7월16일(금요일) 오후5시에 충정로or혜화 (파이루가공지)

다음 회의에서 일 진행상황 점검

7. 16 청소년활동가대회

참가: 활기 개굴, 어쓰, 엠진/ 아수나로 파이루/ 네트워크 난다/ 흥사단 위더스 훈민

1. 예산 검토와 수정

<예산 검토, 자잘한 수정>

숙박+ 식사: 2박 4끼 300만원 (강당 대여 50만원으로 합의)

버스대절: 최소 115만원 ~ 120만원 선.

차비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가능 (왕복)

-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나 오는 지, 참가 신청을 받아보고서 규모를 잡아야 함.

자료집: 분량 보고서 인쇄 할 지 제본 할 지 결정

간식: 싸게 먹자

뒤편이: 술 먹으면 비용 늘어나는데 아직 안 정함.

마지막 날 식비: 식빵 등 생각하면 10만원 이내 가능함

진행물품: 전지, 크레파스, 명찰, 포스트잇, 기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시계 등) 은 최대한 새로 구매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걸로 씀.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은 작은 걸로 삼. 폴카를 여기 저기 빌리면, 필름 크기가 다 달라요;

여행자보험: 3천원 비싸요. 더 싼데로 알아보자.

기념품: 예산이 남으면 함. 후보 해놓고, 분담금이나 후원금 모이는 거 보고 생각.

(티셔츠, 텀블러, 팔찌, 스포츠 타올 -그림 새기는 것도 가능한 지 알아보기- , 그 외)

-> 기념품 취소! - 촬영비, 후속자료집비로 돌린다.

참가비: 참가비 5천원 선에서 받음.

단체후원금, 분담금: 10만원 좀 부담스럽겠지만, 남으면 돌려준다 하고 받아알 듯.

-> 어쓰가 계좌 만들어서 받고 관리함!

<예산 수정> 개굴, 또연, 어쓰 (다음 주까지!)

아다재 지원 신청서에 쓴 자부담이 현재 확 줄어든 상황. 그 외 달라진 예산 상황까지 예산 내역을 수정하고, 설명해야 함.

- 버스비 다운, 숙박비, 참가비 3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청소년에게는 너무 높은 비용이라 숙박비의 일부를 아다재에서 지원한다. 지방에서 오는 청소년에 대한 교통 지원금.

<미리 돈 쓸 일> 버스 예약금! 버스 예약 빨리 해야 함

2. 후원요청서 검토

후원요청서 수정:

1) **취지** 전체 제목을 2010년 청소년 활동가대회 소개와 후원으로 바꿈. 촛불 때 예뻐했다 등 전체적으로 약간 시비조? '자신이 처한 억압' 이란 문구 - '챗'이 인권 활동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서 환경, 평화 등 다른 분야들은 제쳐지는 분위기. 이 문구도 인권 활동 위주 분위기.. 대체로 여러 분야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2) **후원 안내** 세부 예산 넣을 필요는 없고. 전체 소요 예산 얼마 정도로..

-> 수정은 난다.

3. 후원 조직, 연락 분담

- 후원 조직 관련 연락 담당: 어쓰 (후원 계좌도 어쓰 통장으로 함)

- 챗 참가자 관련 연락 담당: 난다, 훈민

- 후원 조직: 학술단체협의회, 민교협/ 녹색연합, YMCA 여성환경

전교조 서울지부, 참여 청소년이 있는 지부 (인천, 광주, 강원, 울산, 대구, 부산, 경기, 충남, 등) /

*포커스 그룹을 몇 가지만 정해서 10만원씩 백만원 등으로 계획을 잡음

민교협, 학단협, 녹색연합,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YMCA -> 또연
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인권위(배여진), 불교인권위 -> 난다
참여연대 -> 계좌만 보내면 10만원 받을 수 있음
참학, 전교조 본부 -> 훈민
대안교육연대, 진교연, 평학 -> 엠건
전교조 지부 -> 파이루, 개굴
-> 후원요청서 수정을 주말까지 되도록 해보고, 월화쯤에 연락함.

4. 참가신청서 검토, 신청 방법 논의, 참가비

- 참가신청서 수정, 추가 할 거: 어쓰가 기록함.
- 수정: 주요 관심사, 활동 분야 (인권, 문화, 환경, 기타(괄호))
'켓'에서 기대하는 것을 없애고, 신청 이유로 합치자.
- 준비팀에서 고려해줬으면 하는 특기 사항 (장애 등) -> 회의 끝나고 바로 다듬어요.
- 신청방법: 신청서는 메일로 받고, 접수 이후에 각종 공지는 카페에서..
- 관심 있는 단체 비청소년은 어쩔 꺼?
: 기획단에 참가하는 비청소년까지 포함, 이후 신청자까지 최대 20인을 넘지 않도록 함.
- 참가비: 5천원!

5. 프로그램 분담

프로그램 제목 확정 - 로그인, 로그아웃, 친구추가, 쪽지 보내기, 대화창, 창 흔들기, 원격조정, 채팅 용어들 활용해서 컨셉에 맞게 연결 (개굴)
프로그램 세부 기획, 전담자 분담
오티, 약속 정하기, 활동 나누기: 엠건, 훈민 +
물놀이, 뒷풀이: (동인련), 어쓰, (거부기)
모듬토론, 끝장토론: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단체 별로 연락해서 섹션 토론 설명하며 준비해 달라 미리 얘기. 발제문들은 자료집에 다 실고, 둘째날 뽑힌 건 하고 안 뽑힌 건 그거 보면서 따로 얘기하고.. (동인련), 개굴, 난다, (아우름)
영어 번개, 마지막 날 아점, 활동 사진 모으기, 상시 프로그램 댓글 토론 준비: 파이루

6. 이후 일정

참가신청은 토일에 웹자보 돌리고 이번 일요일(18일)이라도 바로 시작!
사전 답사 - 다음 주 금요일

기타 나중에라도..

<오덕 훈련원에 확인할 리스트>

- 숙소 근처에서 감자, 고구마 구워 먹고 밤에 놀아도 되나
- 프로젝트 사용료 따로 받나

사전 총 시뮬레이션은 8월 2, 3일 중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함

다음 회의는 7월 24일 토요일 1시

7월 25일 프로그램 기획 회의

(개굴. 엠건. 어쓰. 타이루. 한별. 민영. 형우)

-----첫째날-----

+ 몸놀이 프로그램

로그인 들어가기 전 놀만한 프로그램 추가 - 아직 어색하니깐
(이름외우기 대항전 형식등)

로그인 (2시-4시)

제비뽑기- 사람이 겹치게 되기 때문에 시간 지체 되는 부분 보완
서로 랜덤으로 뽑은 질문은 서로 한 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기!

과자 풀고 자유롭게 떠드는 시간

환경설정(4시-6시)

*생활구역1(반말),

*생활구역2(호칭, 폭력)

*마인드구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땐 어떻게?도 포함)

*엽기구역

생활구역때에 방별로 -번개방(야식번개방, 잠방, 게임방, 영화방,조용한 밤 산책방등)을 정
해서 ...

강력한 제안 나왔을시 결말짓기 할때에 마무리 지을 만한 제안안 생각해놓기
따시킴지 않도록...

활동나누기 -발표방식 다양하도록 (활동을 나타내는 상황극, 연극등)

1안)

*뒷풀이때 무얼 먹을까?-전지에 추가로 무얼먹고 싶은지 추가 or 이야기 수요조사
 잉여번개모임은 하고 싶을 때 하는..
 (영화, 드라마, 화투, 보드게임, 만화책등...준비해가기)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

토론 프로그램

1) 오락하기

[기획 내용]

- 끝장 토론에 앞서 미리 고민을 나눠보고 활동 주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으로. 미리 카페를 통해 수요 조사도 하고...
- 주제 : 공부/ 환승센터(전환점이 되었던 것)/ 빠염(결별하고 싶은 것)/ 설레임과 망설임(뿌듯했던 경험이나 가족과의 관계 해법 등)/ 앳싸(새롭게 시도해본 독특한 활동 양식 등)
- 각 방별로 이야기를 주로 풀어줄 사람을 2명 정도 정해두기로 함. 2명의 수다꾼은 미리 자료집에 내용을 실음. 각 방별로 나온 이야기는 전지에 적어 공유

[보완 의견]

- 공부는 왜? 학교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는 것, 나에게 진짜 공부가 뭔지, 활동과 공부를 연결시켜 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생각.
- 각 영역의 의제를 심도깊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모둠토론 시간을 정했었음. 그런데 그 의제와 관련없는 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이 소외되면 어쩌나 하는 어려움. 특정 주제에만 몰릴 수도 있음. 참여자들의 참가 동기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으면 더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 (-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마인드 ; 흔치 않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해내려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음.)
- 의제 중심으로 얘기하면 워크숍 분위기 될 것 같다. 기획팀에서 잡아온 주제가 현재 ‘켓’ 분위기와 더 맞는 것 같다.
 => 카페를 통해 주제는 더 보완, 수정해 봅시.
 => 기획단 1인 + 참여자 중 1인으로 수다꾼 정하기
- 엠건 + 민영 : 밑줄 짝/ 한별 : 설레임과 망설임/ 어쓰 + 훈민 : 환승센터/ 빠염 : 난다 / 앳싸 : 거부기
- 수다꾼은 진행자가 아님. 진행자와 서기는 각 방에서 알아서 정하기

2) 끝장 토론

[기획 내용]

- 주제: 활동하면서 어려움을 만드는 요소들을 짚어보면 좋겠다. 예를 들면, 끈대들 사이에서 간지나게 살아남는 법
- 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 정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법 등 공통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

- 진행방식 : 나쁜 꼴대, 착한 꼴대들이 등장해서 참여자들이 대응하는 방식

[보완 의견]

-제목 : 강심장? (ex)

-최종 주제 확정 : 나이에 관한 문제 (ex 너희는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상 청소년이라는 위치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을 그냥 단순히 무시하면 끝날 문제인가 -포커스를 몇 가지로 나누기!)

크게 나이를 통하여 그 아래에 세부주제를 정한다.

-적당히 끊어줄 사회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에 해야할 일은 프로그램 보장 + 역할 분담!

+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물놀이 할 때 발리볼 같은 것

+ 야식문제 간식문제 재료 목록 뽑아야!

오덕 훈련원 추가 체크해야 하는 것

-빔 하나 정도 빌려가는 것으로! (잉여번개모임 때 영화 같은거 보려면)

-음식은 채식주의자 고려. 일품요리에 고기 섞지 않는 정도로 이야기

예산관련

-프로그램 기획 모임 주기적으로 온 이들에게 교통비 등 지급

-35인승 두 대 편도로 빌려서, 10명 선발대 봉고차 빌려 따로 미리 출발

-교통비 지원 문제 - 각 한명 5만원씩

-자료집 후속 자료집 100부정도

-대회 기록, 편집 등 인건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봐요.....

+ 영상 테이프 가격 등 알아보기

-분당금은 좀 더 들어오는 것 보고서 결정하기로

-추가 예산 지원 알아보기 (전교조, 참여연대 확답 필요)

역할분담

-먹을거리 뽑기 준비물 목록 뽑기 : 파이루

-준비물, 먹을거리 직접 구매

-후원 확인 : 난다

+ 환경 평화 등 다른 쪽으로 참가자 더 알아보기, 연락하기

-대안 학교등 대안 교육 센터 통하여 연락 : 어쓰,엠견

-시민단체 연락 돌리기 : 파이루

다음 준비 회의 및 시물레이션 8월 2일 오후 2시
장소는 파이루가 알아보고 공지

100803 청소년활동가대회 ‘젯’ 최종 점검회의& 시물레이션

참가: 파이루, 한별, 거부기, 난다, 개굴, 날토, 어쓰, 엠건, 형우

1. 준비물 체크

참가리스트: 남부터미널- 난다, 서부터미널- 거부기 체크, 총 참가 리스트- 파이루 체크

풍선: 강당에 깔아 둘거임.

현수막: 현재 요청했음.

노트북: 모듈 토론 속기 노트북으로 3대 추가함 -> 총 5대 (파이루, 엠건, 거부기, 공현, 한별)

빔 프로젝터: 강당용, 번개 모임으로 2대 필요한데 1대 여유 있음. 세 대 모아보고, 무거우면 당일에 두고 가던가 함.

카메라 테잎: 아직 못 샀음. 들 근처 도매상에서 삼. 6밀리 짜리 10개 사만원.

디카: 기획단 중에 디카 있는 사람들 다 챙겨오기

들에서 챙겨주는 것들: 캠코더, 지지대, 색연필 크레파스 등, 개굴의 감자 한 박스!

물총: 50개 많음. 더 적게 샅시다. 안 사기로!

간식: 내일 파이루 거부기 형우 준비팀이 목록 짜기로 함.

(수박, 옥수수, 감자, 밤에 풀 과자들, 등)

술: 선발대가 차 타고 읍내 가게에서 사감. 스텝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방에 쟁여둬.

활동 전시회 사진: 진교연, 영화제 칼라 프린트 사용 -> 칼라 잉크 정품 사서 내일 작업 (날토, 파이루)

2. 자료집 구성

- 표지

- 일정표+ 간단한 진행안: 거부기가 예전에 쓴 거에 수정해서 함.

- 어떤 이들이 왔나: 단체/ 팀 이름과 한 줄 설명. 참가자들에게 내일 버스 어느 터미널로 가나 물어볼 때, 한 줄 설명을 부탁함.
- 프로그램 별 글들: 복사가게에 문서 파일을 주고 복사함. 이후 폴더에 끼움.
- 모둠 토론 : 섹션 별로 이야기꾼들이 하나씩 5개 (엠건, 한별, 어쓰, 난다, 거부기)
- > 카페에 있는 '오락 사전 기획회의' 기록에 챗터 별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쓸 때 참고.
- 끝장 토론 : 기획 취지(개굴) + 어쓰, 한날, 개굴, 난다가 a4 반장 분량으로 자기 입장을 풀어씀.
- 메모장 (2장)

총 편집: 한별

-> 내일 오전까지 카페 공유. 서대문 로타리 복사가게에 맡김. 분류해서 집어주는 것까지 부탁. 75부. 영수증 주세요. (파이루)

3. 참가자

인원: 전날 통해 알게 된 5명은 파이루가 체크. 공기까지 6명 추가. -> 70명 이상일 듯
 차비 지급: 현장에서 모아서 계좌이체. 통장에서 돈을 찾아와서, 꼭 필요한 사람은 현금 지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4. 재정 관련 /후원 체크

영수증: 그동안 쓴 돈의 영수증은 개굴에게 모아 줌. 답사팀 등.
 전교조 서울지부 30만원, 충남 지부 20만원, 본부는 내일 오전에 다시 확인. 학단협 10만원, 참여연대 10만원, 참학은 늦게라도 해줄 수 있음 해주겠음.
 회의비: 챗 끝난 이후에 8만원 일괄 지급.

5. 당일 진행

선발대: 9시 충정로에 만남. 훈민, 파이루, 한날, 한날 친구 (차) 커다랗고 무거운 애들 먼저 챙겨감. 가벼운 건 버스에 실어가자.
 당일 출발 출석체크: 서울역- 거부기 (11시 10분) /남부버스터미널- 난다 (11시 30분)
 점심: 김밥 등 사먹어요. -> 로그인 프로그램 수정

7. 프로그램 진행

로그인: 주먹밥 먹기로 한 거 수정. 뒷풀이 없앴. 주먹밥 재료 대신 수박 등 야참꺼리 걸까? 나머지 세부사항은 기획안 참고. 두 시간이나 게임하지는 못 할 것.

환경설정: 세부사항은 기획안 참고. 구역 별로 들어가서 얘기 할 사람 배치 필요!

활동 나누기: 라디오를 잘 해봅세. 상세 기획안은 카페 참고.

카드질문 - 카드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질문을 적음. 익명성 보장. 앞에 전시해두고, 그 질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누구든 자유롭게 답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피드백 이뤄질 수 있도록.. 둘째날 토론 시간에 전시된 질문 답변에 있는 논쟁거리들을 녹여본다던가.

*단체보다는 활동을 중심으로: ex) 랜덤 인터뷰 - 단체/활동명 외에 랜덤 추가. 디제이 임의 ㅋㅋ 같은 거. 등장 안 한 사람들 챙기기. (리포터가 잘 챙겨알 듯.)

인여 번개 모임: 본관에 노땅방. 사무실 위층 두 개 방은 처음부터 남/녀 자는 방. 나머지 건물들- 텡굴 텡굴방(만화책, 고스톱, 보드게임 등), 영화 보는 방(영화 끝나면 밑에 방으로 가자.), 달빛산책모임(산책 끝나면 어데로?), 게임방(시끌시끌)

물놀이: 각자 물놀이 공 같은 거 챙겨 와서 대충 놀자.

비 오면 낮잠을 없애고 오락을 먼저 하고, 저녁 먹기 전에 쉰다.

오락: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정함. 수다꾼은 배치. 사회자와 속기는 모두 안에서 정함. 전지에 얘기하는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정리해두고 나중에 전시. 속기 기록은 후속 자료집에 쓰임.

끝장토론: 청소년 활동,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 설정된 패널들과 참가자들의 토론 중심.

*청와대 학생은 최현실로 이름 수정! ㅋ

패널들이 악역. 실제로 동의하는데, 괜히 얘기 못 할 수도?

반박하기 쉬운 얘기들은 아님. 반박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재미없어질 수도 있지만.. 깔려도 워낙 만만하지 않은 주제임. 무튼 사회자가 역할을 잘 해알 듯.

<인여 해야 될 일 리스트>

- 전체 역할 분담 체크

사진 촬영, 영상 기록, 전체 프로그램 중 속기, 간식 준비 담당, 프로그램 별 세팅 담당, 속

소 별로 들어갈 사람들 배치. 그 외..

<준비물 관련>

- 총 준비물 리스트 (추가 보충, 수정까지 완료한 버전으로!)
- 간식 등 필요한 준비물들 사라가기 (낮에 움직임!)
- 프로그램 별 필요한 준비물(피켓, 카드 등) 제작 및 세팅 리스트 만들기
- 잉여 번개 모임 때 필요한 것들 : 영화 있는 외장하드(짱얼), 보드게임, 고스톱, 만화책, 손전등, 그 외..
- 수시로 깔 음악들
- 5대 노트북 사전 섭외 및 배치
- > 당일에 가져 갈 준비물 총 취합하고 체크, 분류(선발대/ 서울역 팀)

<활동 전시회 관련>

- 진교연, 인권 영화제 칼라 프린트 -> 칼라 잉크 사서 다 뽑기! (날토가 사진 편집~)
- 자료집: 오전까지 글 모아서, 한별이 총 편집. 서대문 로타리 복사가게에 맡김. 분류해서 스탬플러로 집어주는 것까지 부탁. 75부. 영수증 필. (따이루)

<연락 관련>- 추가 참가자 체크 및 전체 참가자에게 연락 돌리기

(서울역/ 남부터미널 어느 쪽? 단체/ 팀마다 한 명 집어서 한 줄 소개 보내달라고 부탁. 점심 김밥 필요한 지 까지..)

<프로그램 관련>

- 로그인 프로그램 마저 보충?
- 환경설정의 구역 별 이야기꾼 배치.
- 모난 생방 대본! 리허설! 까악

또 체크할 거 있으면 추가!

아아 마지막날이로다 화이팅합시다!

10.8.13 청소년활동가대회 ‘챗’ 평가회의

참가: 만성, 난다, 어쓰, 형우, 개굴, 민영, 한별, 훈민, 엠건

1. 평가

1) 준비과정

- 기획단이 누구누구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음; 준비 과정이 사람 드나드는 거 너무 불안정
- 시작이 너무 늦었음. 맨 처음 모임 잡는 데 너무 오래 걸림. 많은 단위 챙겨서 일정 조율하고 이러느라 준비 자체가 늦어버림.
- 취지에 대한 합의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음. 챗을 뭐 때문에 하는 건 지 상 같은 게 흐릿. 기획단들도 잘 몰랐던 거 같음. 참가자들한테도 애매모호하게 전달됨.
- 캠프 구체적인 준비가 빠듯하게 바로 몰아침. 캠프 준비 워크숍 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나았을 것 같음.
- 소수 기획단이라 여력이 없어서 따군이 독박 쓴 게 있음. 앞으로는 총괄 느낌으로 전체 상황 알고 체크하며 갈 사람이 1인 이상 있으면.. 집중적으로 붙어서 갈 몇 사람이 최소 보장 되서 가는 게.. 안 되냐; 총괄자가 빠져도 다른 이들이 챙겨서 갈 수 있게. 정보가 몰림.
- 일을 모아놓고 준비물, 정보 모을 공간이 없었어.
- 일의 순서가 안 잡혀있다. 일정을 짜서 사람들이 여유 있게 내용 갖고 논의할 수 있는 회의가 기획회의가 되어 하는데. 크게 기획 잡는 것은 했는데 내부에 어떻게 준비해나갈 지 시간표를 정해놓고 분담해서 가는 게 없어서 막판에 일이 몰림. 총괄 역할의 일거리를 나누어놔야 하는 게 있는 듯. 사람 많고 시간 없을수록, 각 일 별로 담당자가 있어야.
- > 역할 배분을 제대로 하고, 그 역할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코디도 확실히 있어야 할 듯.
- 회의할 때 나온 얘기들을 애매모호하게 끝맺지 말고, 딱딱 결론 내서 공유.
- 프로그램이 늦게 나왔어. 프로그램은 실무랑 별개로 초반부터 역할을 나눈다던가 따로 잘 챙겨서 기획을 미리미리 합세.
- 개개인한테 기대는 게 있음. 애는 이거 해봤고 해봤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리는.
- 처음 해보는 행사라 막막했음. 참가자가 누굴 지 너무 포괄적이어서 상 잡기가 어려웠음.
- 사전답사를 생각보다 허술하게 했던 듯. 구석구석 모르는 게 많았음.

2) 프로그램 내용/ 진행

*그냥 청소년 캠프보다 사람들이 훨씬 잘 보였다. 청소년활동가가 왜 땡겼나?

- 다른 활동가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욕구
- 외로웠던 거, 답답함도 있었던 것 같음. 파이루 생각엔.. 청소년 활동 분야에 있으면서 청

소년활동이 정체되었다는 느낌. 이걸 어쩌면 좋을까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 어쓰 생각엔.. 학교 다니면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에 다들 막막함이 있었던 것. 만나고 싶었다.

- 훈민이 하고 싶었던 건... 자기 단체 있는 사람만 만나고, 다른 단체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음.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가격도 저렴하니까.

- 적은 참가비와 교통비 지원이 짱이었음.

* 끝장토론 프로그램

중립 취한다는 사람한테 중립 따윈 없어 해보야..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상황.. 학생부장과 학생의 갈등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학생부장을 소환. 나세기 학생이 여차저차 사연으로 인해 퇴학당할 상황을 주고 학생부장을 불러왔을 때. 참가자들이 선택해야 함 누구 택할 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줬으면 좀 더 몰입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난다와 어쓰의 설정이 모호했음.

- 좀 더 리얼하게 가고 싶었음. 설정극이란 걸 드러내고 가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가 이미 나누어졌다는 느낌이 강했음. 상황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얘기가 너무 어려웠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미처 그런 고민을 못 해 봤던 사람의 경우 이해가 안 감.

- 하나하나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 주제인 데 너무 많았음. 가짓수를 좀 줄일 걸. 좀 얘기하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치는 방식이었음.

- 스텝들이 중간 중간 발언을 짚는 역할을 했으면 진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배치를 못 하고 갔음.

- 참가자들이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

- 상황극에 더해 상황극을 하니까, 이게 진짜인 지 가상인 지 헷갈림. 난 발언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음 참가자들. 이건 연극인가.

- 네 명이서 말기에 시간도 부족했고, 생각을 많이 못 하고 갔음. 준비 부족 문제가 있음.

- 자료집에 실린 글들: 그런 글들 신는 게 적당했다. 그건 대본이었어야 했고.. 그 글 외에 캐릭터 설명, 프로필 같은 걸 넣는다거나. / 오히려 얘기가 어려워서 자료집 보고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음.

- 앞으로 2010년에 뭘 할 건지를 얘기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

- 너무 다양한 단체, 다양한 입장이라 공감 안 가는 얘기가 많았음.

- 너네끼리 싸우는 것 같았다는 느낌. 무서웠다는 반응. 준비팀 간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했었고. 참가자들 간에도 불편한 맘으로 돌아갔던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 교관한테 혼나는 기분이었대요.

- 참가자들 간 잼이 너무 컸어. 아수나로/ 와이엠씨에이 지역단체/ 개인 참가.. 다들 경험이 달라서 지난 얘기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얘기를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공감이 안 됨. 참가대상에 대한 분석, 고려 못 한 건 확실했음.

* 오락

- 오락이 제일 좋았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편히 수다 떠는 분위기라 제일 자기 얘기 꺼 내기도 좋고 편안했음.

* 아점 먹기

- 요리기구도 애매, 재료도 애매, 상태도 애매.

* 전체

- 행사 전체에 친절함이 없었어. 그 글을 다 읽어봐야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자체는 재밌게 봤던 거 같은데, 기획 과정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스텝들이 자기를 숨기고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말하면 분위기가 교관 느낌 되버림. 종이 쪽지, 문자 등.

- 아수나로, 나다, 어떤 커플, ...몰려 다니는 바람에 위화감 조성.

- 다음엔 공간 대여해주는 곳과 시간 조정을 확실히 해야 함. 이번엔 10시, 11시 엇갈리는 게 있었음. 일찍 날짜를 확인하고 공간을 잡았으면 됐을 문제임.

- 방을 너무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숙소 쓰는 게 힘들었음. 자는 사람들 잘 데가 없었음. 여자 숙소 쓰는데 다 같이 어질러놓고 여자들이 치움.

- 도난, 분실 사건 있었음.

- 개인 활동가들에 대한 검증? 개인으로 온 사람 중 챗 내용이 이해 안 가서 힘들었던 사람도 있는 듯. 상과 목적을 확실히 하고 그에 맞춰서 사람들 모으자.

- 폭력적인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 노릇, 여자들만 치우는 짜는 분위기. 굳이 책임이 주워지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메워지는 느낌이 제일 좋긴 한데 이 역할분담이 성으로 몰리거나 나이로 몰리거나. 마무리 뒷정리는 왜 비청들이 하게 될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 지.

- 로그인 때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 어딴냐, 물 같은 거 다들 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거 공유 했어야 했음.

- 물놀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짐. 물놀이가 원래 여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구명난 프로그램 같았음. / 그럼 안 되나? / 시간이 비면 원래 친하던 애들끼리 놀게 됨. 친한 사람 없는 애들은 방치 됨.

- 다른 사람들이 더 쉬여서 어울려 놀 만한 꺼리가 부족했음.

- 비어 있을 때 누군가 알았어. 그걸 같이 메우자 의견을 냈. 그게 안 된 사람은 감정이 상할 수도, 다른 사람은 굳이 자기가 왜 그런 걸 같이 책임져야 하는 지 모르겠는 애매한 상황이 있음. 그 시간에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계속 그렇게 가면 부담이 많이 됨. 비어있으면 같이 확인하고 나누는 게 필요했으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용이 안 됐어. 누군가 지켜 있는 게 보여. 비어 있으면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지켜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

와.

- 끝장토론에 대한 기대가 다 달랐음. 참여자 수위, 경험 다 다르고, 목표도 다를 때 방향을 잡으려면 누군가가 의견을 보태야 함. 몇 사람이 제일 어려운 프로그램을 힘들게 했는데 평가는 가혹해. 목표가 제대로 안 잡혀서 생겨난 문제라면 그건 모두의 책임.
- 보고서 낼 때 실제 기획단 한 사람들만 넣자. 희망 청다 등은 제외.

2. 예산

후원금: 전교조 본부 곧 준대요. 참학, 참여연대 확인해서 받으면 됨. 후원금 총 120만원.
총 예산 620만원. 아다재 예산 중 잡혀있는 부분이 후속 자료집(35만원), 후속 모임 진행비.(20만원) 후원금 들어오면 아마 썸썸일 듯. 단체 분담금 안 받아도 될 듯? 안 내는 게 목표. 다 계산해보고 구멍난 부분은...어떻게든 합시다.

3. 후속모임

: 지금 평가회의 때 나온 얘기 같이?

: 앞으로 어떻게 만날 지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

: 후속모임이 나름 의미있게 진행되긴 해야 해요. 예산에 따르면 규모가 있는 행사; 뒷풀이가 아니라 모아지는 의견 같은 게 있어야.

* 메일링을 따로 만들까(youthM), 아니면 기존의 youthhr에 가입하는 걸로 할까.

- 유스에치알로 갈 거면 사람들에게 유스에치알은 이런 건데 청소년 활동가 다 같이 쓰는 메일링으로 만들자 얘기하고 가면 되고.

- 이 메일링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각자 어떤 활동을 하는 지 궁금하니까 나누는 용으로 쓴다면 따로 만들던가.

-> 후속모임에서 얘기합세.

* 카페를 죽이는 건 아깝고, 메뉴만 개편해서 후속 모임 통해 상이 잡히면 카페 통해 소통.

후속모임! 언제? 8월 22일 2시. 장소 섭외. (대관비 영수증 줄 수 있는 곳)

챗 안 왔어도 관심 있는 사람 오시라고 해.

다음 주 안에 후속모임 준비하러 만나자 - 형우, 어쓰, 한별, 훈민, 파이루

역할 분담: 회의록 정리(오늘 것까지 압축적으로. 주요 안건들만. 총 9번의 모임. 공지는 했는데 그 모임이 성사 됐는 지 어졌는 지 헛갈림. 오늘 것까지 총 10회- 엠건), 후속 자료집 용으로 속기 기록 다듬기(난다, 공현), 프로그램 별 핵심 사진 몇 가지씩 슈아내기(돈 든 것

들이 증거로 들어갈 수 있는 사진 중심; 현수막, 자료집 등, 준비물, 음식들. 프로그램 별로 4장. 전체 시설, 전체 대회에 대한 거 10장)

->8월 넷째 주말까지 완료

4. 후속 자료집

: 후속 모임 내용까지 해서 후속 자료집을 완성. 이후에 편집해서 배송.